

22곳중 12곳이 영남 출신

막바지 이른 공기업 사장 인선 지역 편중 극심

서울 3곳, 호남 2곳... 정치권 출신 많아 낙하산 논란도

정부의 공기업 사장 인선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인선 지연에 따른 업무공백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주요 공기업 사장 인선에서도 영남 편중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여타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핵심 공기업 24곳 가운데 22곳에서 사장을 선임하는 등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주요 기관장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22곳 공기업 사장 가운데 한전을 비롯한 12곳의 기관장이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으며, 서울 3곳, 호남 2곳, 충청 2곳, 강원 2곳, 경기 1곳 등이 나타났다.

한전은 20일 오전 주주총회에서 김상수(62·경북 김천) LG전자 고문을 사장으로 공식 선임했다.

앞서 19일에는 석유공사 사장으로 강영원(57·전남 장흥) 전 대우인터네셔널 사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수출입은행장에는 고창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진동수(59) 씨가 선임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4일 주총에서 현대건설 발전사업부장과 GS건설 고문을 역임한 정승일(63·인천)씨를 사장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정부에 임명제청을 요청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주강수 전 현대자원개발 대표이사사와 이승웅 전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 등이 유력하며 다음달 29일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반면 무역 관련 기관장 자리에는 지식경제부의 전신인 산업자원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조환익(58·서울) 전 수출보험공사 사장이 코트라 사장을 맡았고 수출보험공사 사장의 경우 유창무 무역협회 부회장과 김철두 전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 산자부 출신 간에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논란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이 집권했으나 공공기관장 인선에

서 낙하산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조폐공사 사장에 전용학(56·충남 아산)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6일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달 25일 선임된 이재재(49·강원 동해) 광혜관리공단 이사장도 지난 총선에서 동해·삼척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인물이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이팔백(64·경남 하동)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이면서 영남 출신인 데다 서울시장 대표를 역임한 경력에 있어 이른바 '고소영'과 'S라인'에 모두 걸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대주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안택수(65·경북 예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보 이사장을 맡아 논란을 불렀다.

토지공사 이종삼(59·영남) 사장과 도로공사 류철호(60·서울) 사장, 철도공사 강경호(62·서울) 사장, 방송광고공사 양희부(65·부산) 사장, 인천항공사 김중태(61·경남 양산) 사장 등도 낙하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러시아-그루지아 분쟁 종식” 러시아-그루지아간 분쟁 종식을 위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러시아-그루지아 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초안에 관한 프랑스의 토의 요청에 뒤이어 열렸다. /연합뉴스

과일주스로 약 먹으면 효과 없다

약과 과일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캐나다 CTV 방송은 18일 동부 명문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이 실시한 '약과 음식 간 상관관계'에 관한 실험에서 특정 의약품을 자몽, 오렌지, 사과 주스와 함께 섭취하면 약효가 사실상 소멸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보도했다.

CTV는 이 대학의 데이비드 베일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알레르기 약인 알레그라를 환자에게 물과 함께 복용토록 했을 때 약효가 정상적으로 나타났으나, 자몽 주스와 함께 먹게 했을 때는 거의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베일리 박사는 주스가 어떤 의약품의 약효를 떨어뜨리는지를 규명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과 고열한 치료제, 심장마비 약품, 일부 항생제가 주스와 함께 복용할 수 없는 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며, 주스는 약 복용 전후 2시간 동안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北에 달렸다”

미국은 19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 “공은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며 북한이 핵 검증체제를 먼저 마련해야 북핵 6자회담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우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검증 패키지를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북한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공은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핵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검증체제를 마련해 다른 참가국들을 만족시킬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북핵 검증 패키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무사라프 처벌 여론 고조

국민 65% “사법처리 원해”...살해 위협도

파키스탄 집권연정의 탄핵 압력에 굴복해 대통령직을 내놓은 페르베즈 무사라프에 대한 처벌 여론이 들끓고 살해 위협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사라프가 대통령 재직시절 우방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피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지 언론에 따르면 19일 열린 집권연정 지도자 모임에서는 무사라프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놓고 열린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무사라프의 쿠데타로 실각했던 나와즈 샤리프의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N) 측은 무사라프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독도 문제 여전한데... 정부 내달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여부 고심

정부가 다음달 일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동 교차로 해설사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한때 한·중·일 정상회담 불참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들어 '참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20일 “현 단계에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다음달 21일 일본 고베에서 3국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조정중이라

는 일본 NHK 보도와 관련, “남자와 장소 등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명분과 실리’ 면에서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아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선 3국 정상회담은 지난해 한국정부가 주도해 합의를 본 사안이다. 3국 정상에 따르면 이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또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일본에 일정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독도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게다가 일본측이 최근 구체적인 회담 개최 일자를 정해놓고 한국측의 참가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독도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회담할 경우 국내 여론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열심히 뛰고, 인분을 통해서도 흘리는 것 같은데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우리가 참석할지 여부도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강산 체류 인원 200명만 남기고 철수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체류 인원을 200명 이하로 줄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20일 오후까지 현재에 200명만 남고 철수했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20일 금강산에 체류하던 150명이 귀환함에 따라 금강산 현지에는 200명만 남게됐다. 잔류인원은 현대아산 분사 직원 26명을 포함한 남측 인원 75명과 재중동포 등

외국인 125명이다.

당초 북측의 요구대로 20일까지 199명만 남고 퇴되었으나 현대아산 분사 직원 1명이 19일 금강산에 갑자기 출장을 가는 바람에 이날 통일부의 방침대로 150명을 철수시키고도 200명이 됐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출장 직원을 21일 복귀시

킬 방침이라 21일부터는 금강산 잔류인원이 199명으로 유지된다.

현대아산은 금강산에 최소 필수 인원인 25명의 분사 직원만 남기로 했기 때문에 이들을 향후에도 별도로 빼내지 않고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출장 형식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금강산 잔류 인력은 총 199명으로 유지하고 출장 수요가 있어 소폭의 숫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금강산에 체류하는 직원들은 금강산 관광 시설을 유지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인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령법률경매
T: (062)225-2665 H.P: 011-605-7777 위치: 법원정문앞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	남지	건평	최대가
서울	동대문	충정로	254/88	1㎡	39㎡	1억 3천 9백 원
	동대문	충정로	108/155	192㎡	7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289/222	192㎡	19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270/217	2㎡	19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55/49	68㎡	8㎡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383/259	192㎡	19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35/144	192㎡	7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220/150	192㎡	84㎡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82/174	192㎡	7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53/180	192㎡	84㎡	1억 2천 원
부산	동대문	충정로	149/96	78㎡	4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31/144	192㎡	6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88/83	68㎡	43㎡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50/111	84㎡	5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31/138	84㎡	5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91/152	42㎡	3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81/82	68㎡	68㎡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108/282	2㎡	19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88/748	72㎡	3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57/197	192㎡	72㎡	1억 2천 원
대구	동대문	충정로	210/615	43㎡	19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504/919	39㎡	19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202/519	192㎡	6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803/948	39㎡	19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448/438	29㎡	19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82/98	192㎡	84㎡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2389/519	72㎡	29㎡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487/688	12㎡	59㎡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577/197	192㎡	7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210/615	43㎡	192㎡	1억 2천 원
대전	동대문	충정로	8/28	80/42	192㎡	84㎡
	동대문	충정로	8/18	18/6024	84㎡	52㎡
	동대문	충정로	8/13	42/8532	192㎡	192㎡
	동대문	충정로	8/22	52/1142	29㎡	192㎡
	동대문	충정로	8/14	131/85	192㎡	192㎡
	동대문	충정로	8/27	59/24	68	52㎡
	동대문	충정로	8/3	84/85	98	68㎡
	동대문	충정로	8/3	42/8532	84㎡	52㎡
	동대문	충정로	8/12	72	85/85	42㎡
	동대문	충정로	8/14	105	85/85	62㎡
충청	동대문	충정로	8/27	82/52	192㎡	72㎡
	동대문	충정로	488/743	78㎡	4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81/218	78㎡	3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483/182	68㎡	45㎡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5342/13	72㎡	4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823/146	72㎡	4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628/119	52㎡	4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650/85	54㎡	38㎡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502/292	52㎡	38㎡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370/129	92㎡	72㎡	1억 2천 원
전남	동대문	충정로	985/182	52㎡	4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390/124	84㎡	5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258/123	42㎡	3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388/89	192㎡	84㎡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712/1343	98㎡	4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881/4742	34㎡	2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588/1588	84㎡	3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218/11832	100㎡	18㎡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4483/1431	17㎡	7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2223/2823	179㎡	7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4298/1481	84㎡	3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19885/1105	1827㎡	72㎡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5070/883	396㎡	29㎡	1억 2천 원	
동대문	충정로	853/871	42㎡	29㎡	1억 2천 원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일 8월 30일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 시험 :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